

# 소형가전제품, 수입증가세 지속

-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

시장개방추세에 편승해 소형가전제품을 비롯한 외국산 가정용 전기제품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정용 전자제품 총 수입실적(수입업체 신고실적기준)은 8월말 현재 4억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어난 가운데 후드믹서·전기밥솥·토스터 등 소형가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드라이어의 경우 수입시장이 확대되면서 8월말 현재 작년동기보다 15만개가량 늘어난 33만1천여개가 반입, 수년째 수입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헤어드라이어수입은 금액기준으로 440만달러에 달해 작년동기보다 68% 늘어났다.

90년대 들어 연평균 30%이상의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토스터는 24만3천개가 수입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면도기 수입은 26만 3천개, 874만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의 23만2천개, 832만달러에 비해 수량 및 금액대비 각각 12.9%, 5.1%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기다리미는 48만6천개 3200만달러를 기록, 소형가전제품 중 가장 많은 수입실적을 보였으며 쥘서 및 후드믹서 등도 수입량이 20% 정도 늘어났다.

이밖에 청소기 및 공기청정기 등이 25%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 전기냄비·전기생선구이·전기온수기·전기스탠드 등 가정용 전기제품 수입이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 『일간무역』

주요 가정용 전자제품 수입현황 (8월말 기준)

품 목	수 입	
	금액(千달러)	금액(千달러)
쥘서	7,738	466
후드믹서	93,242	4,373
전기면도기	262,884	8,744
전기다리미	486,902	32,121
청소기	59,678	8,415
헤어드라이어	331,503	4,398
토스터	243,690	3,934
전기오븐	18,632	1,139
전동칫솔	13,697	627
전기밥솥	1,560	46
전기주전자	34,692	464
전기냄비	2,888	87
전기생선구이	1,374	72
전기햇프레이트	7,873	272
전기온수기	5,023	2,871
전기물끓이기	20,827	745
전기순간탕비기	4,252	123
공기청정기	2,345	458
전기냉수기	186	315
전기스탠드	25,638	3,390